

##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

## 요약문

이상식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한류를 문화 선교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한류는 드라마에서 시작하여, 영화로, 그리고 K Pop을 통해 신한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음식, 관광,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불고 있다. 그 효과는 해외에서 한국어 열풍, 국내 대학교의 유학생 증가에서 보듯이 매우 크다.

이 연구에서는 한류의 문화 선교적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류로 인해 유입되는 유학생들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논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류를 활용한 문화 선교적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한류가 강하게 불었고, 국내 유학생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선교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 주로 주요 선교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대학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개별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례들은 다양하고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솔브릿지대, 숙명여대, 순천대, 서울대, 영남대, 전북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동대, 한양대, 홍익대, KAIST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집단 차원에서 여러 대학교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연합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2010년부터 진행된 차이스타(Chista) 대회이다. 차이스타는 수도권 지역과 영남지역 두 곳에서 매년 개최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 규모로 최근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추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영어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Global Student Mission 대회이다. 14개 대학교의 국제교회들이 협력하여 대학국제교회연합(CICA)가 2013년에 설립된 이후 매년 여름에 개최해왔다.

한류의 문화 선교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한류에 대한 정의와 한류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류 논의에서는 한류의 기원을 1997년 중국에서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에서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류의 기원을 태권도 해외 보급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 전파된 태권도는 이슬람권 국가에도 예외 없이 보급되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 국가들에도 태권도 선교의 성공적 사례들이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한류를 통한 대표적 문화 선교 사례로 국제열린문화교류회(OSIE)의 문화선교 활동과, 온누리교회의 '러브소나타'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국제열린문화교류회는 영혼 구원, 즉 선교와 전도를 위해 1998년 7월, 제1회 서울 북부시민을 위한 쉼키나 워십 집회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멕시코, 일본 등에서 현지 문화와 적절히 접목된 문화선교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특히 한국 전통의 개천무, 부채춤, 사물, 태권무 등 한국전통문화 집회를 300여 차례 이상 공연했다.

한류를 통한 문화 선교의 성공적 사례로 '러브소나타'를 들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 한류의 시작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겨울연가(winter sonata)이다. 온누리교회는 2007년부터 故하용조 목사의 리더십 하에 일본에 사랑을 전하는 '러브소나타' 문화전도 집회를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23개 지역에서 25회에 걸쳐 러브소나타를 개최하였다. 일본에서 2천 개가 넘는 교회와 66,000명이 참가했고,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포함해 15,0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3천 명이 넘는 결신자가 나왔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계의 어느 교회도 시도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역이 아닐 수 없다. 한류를 활용한 문화 선교적 영향을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일본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러브소나타는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2010년 베트남으로 확대되었다.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2021.10.30

##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

이상식(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목차

1. 한류의 발전과 특성
2.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3. 한류와 국내 선교 사례
4.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

2

### 한류의 발전과 특성

#### ● 한류 1기(1997~2000년대 초)

- ✓ 1997년 중국에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한류 시작
- ✓ <사랑이 뭐길래>는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드라마 속 자유스러운
- ✓ 생활환경, 표현 방식이 신선한 충격
- ✓ 중국에서 HOT 콘서트에 청소년 많은 관심


#### ● 한류 2기(2000년대 초~2000년대 중반)

- ✓ 한류 드라마 크게 부각
- ✓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히트하면서 한류 붐 지속
- ✓ 일본 중년 여성층에게 젊은 시절 향수 불러일으킴, 배용준 신드롬
- ✓ 전쟁 폐허나라에서 세련, 로맨틱 나라

3

### 한류의 발전과 특성

- **<대장금>은 전 세계 한류 확산**
  - ✓ <대장금> 중국, 홍콩,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세계로 퍼짐, 한류 붐을 글로벌로 격상
  - ✓ <대장금>은 외교사절, 한국 음식의 세계화
  - ✓ 한류2기는 드라마 전성기, 음악 등 성과 높음
  - ✓ 온라인 게임은 세계 경쟁력, 대만, 중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



4

### 한류의 발전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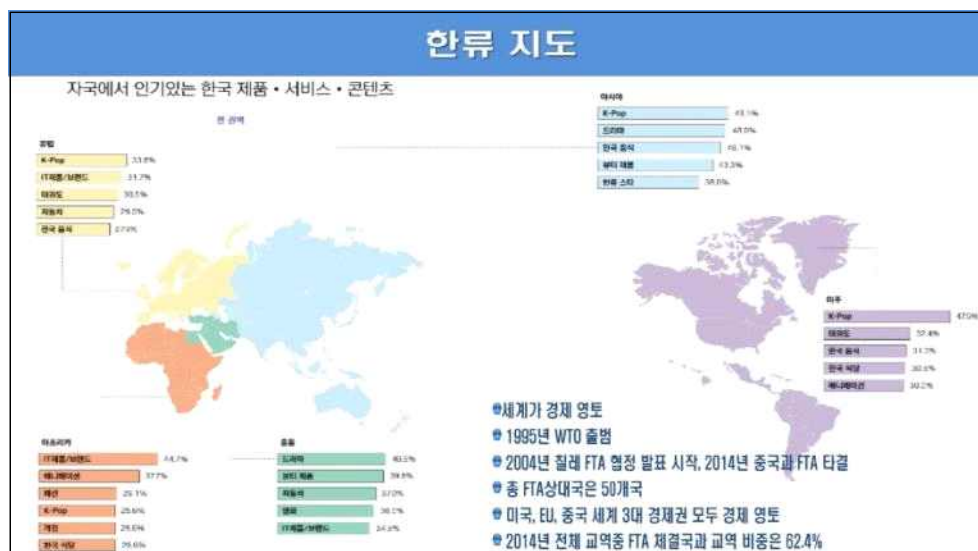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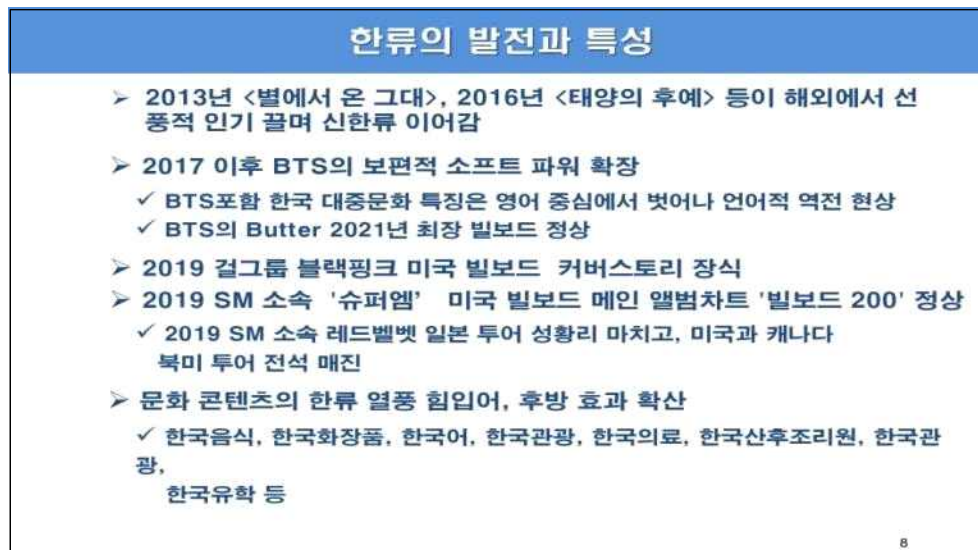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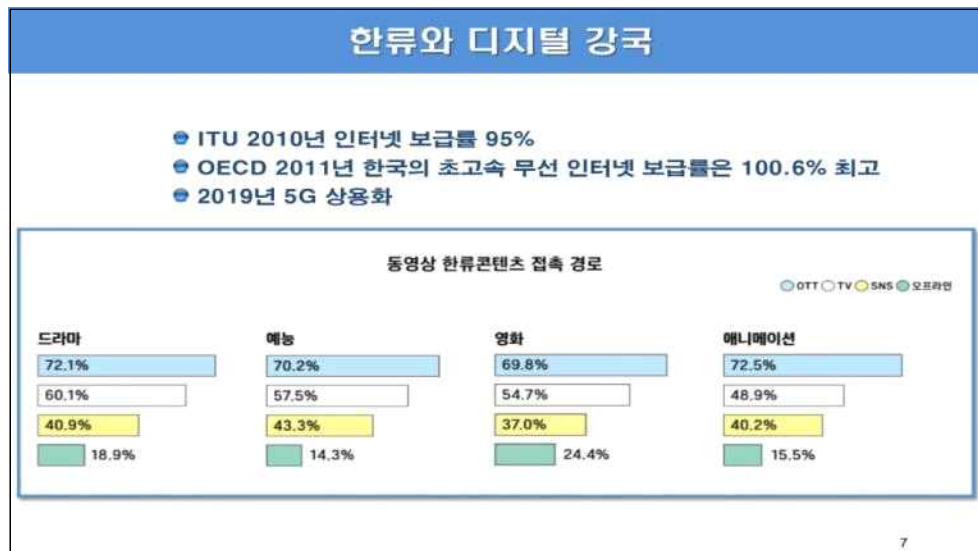
- **한류 3기(2000년대 중반~현재)**
  - ✓ 아이돌 그룹과 K pop 중심으로 '신한류' 붐
  - ✓ 한류가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미국 등지로 확장
  - ✓ 한류 콘텐츠 수출단가 크게 상승
  - ✓ 신한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와 20대 팬층 확장
  - 출, 화장법, 패션 등 따라하는 신드롬
  - ✓ 각국 정부 지나친 한류 붐 견제, 자국 문화 보호위한 반한류 정책

5

### 한류의 발전과 특성

- 신한류의 확산은 한류 지속 가능성 시사
  - ✓ K pop 주도하는 신한류는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확산
- K Pop이 미국 비롯해 세계 각국에 선풍적인 인기
  - ✓ 팝의 본고장인 미국의 빌보드차트에 K-Pop 전용순위 차트
  - ✓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영국싱글차트, 빌보드차트 연속 석권
  - ✓ 4개월만에 유튜브 동영상상 8억회 이상
  - ✓ 2019년 누적 조회수 34억2000만건
- 한국 드라마, 팝문화 등 위한 해외 온라인사이트, 팬사이트 활동
  - : Dramafever.com; Viki.com, Soompi.com, Kdrama.com; hulu.com; Netflix.com

6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태권도 선교

### ● 태권도 선교

- ✓ 세계태권도선교협회, 할렐루야태권도선교회, 다이나믹국제태권도선교연맹, 한일장신대 태권도학과, 천안대 태권도학과, 고신대 태권도선교학과, 각 대학 태권도 선교동아리
- ✓ 세계태권도선교협회는 40개나라에 4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음
- ✓ 태권도가 선교적 접촉점 역할, 선교적 도구로 활용, 직접 사역 감당
- ✓ 창의적 선교전략지역인 10/40창문 지역 모슬렘 선교에 효과적
- ✓ 접근제한국가(RAN : Resticted Access Nation)인 제3국 선교사 입국
- ✓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회교권, 공산권 등 제3세계서 중주국 태권도 사범요청
- ✓ 관원들의 수련회비로 자비량 선교 가능
- ✓ 세계 7000~8000만명 이상 수련자, 800만명 이상 유단자 자원 매우 풍부

10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러브소나타

### ● 온누리 교회의 러브소나타(<http://www.lovesonata.org/>)

- ✓ 영화 분야에서 한류의 시작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겨울연가(winter sonata)
- ✓ 서울 온누리 교회 2007년부터 일본 문화공연, 설교, 지역교회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 부흥·화해·선교·문화 4가지 중심축 가진 맞춘 전도 집회 러브소나타 개최
- ✓ 오키나와부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23개 지역에서 25회 개최
- ✓ 한류 문화코드에 맞춰 공연, 영상, 노래, 감동 메시지의 '문화 전도 집회'
- ✓ 현지 불신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복음 전하는 기회-일본에서 2천 개가 넘는 교회와 66,000명이 참가
- ✓ 한국에서 온누리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 15,00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참가-3천 명이 넘는 결신자
- ✓ 일본에서 성공 힘입어 러브소나타는 찬양 사역 중심으로 2010년 베트남으로 확대

11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노엘 페스티벌

### ● 한국과 베트남 문화교류 K-POP 노엘 페스티벌

- 2010년 : 재즈 피아노와 가야금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 2012년 : 히스팝 JOY 크리스마스 콘서트
- 2013년 : 노엘 크리스마스 콘서트
- 2014년 : 불치병 어린이 돕기위한자선모금 축제
  - ▶ 공동주최 - 베트남 패션회사 라임오렌지와 뮤직포원
- 2015년 한,베 노엘문화축제(1회)
  - ▶ 공동주최 - 뎀퐁인민위원회 조국전선과 뮤직포원
- 2016년 한,베 노엘문화축제(2회)
  - ▶ 공동주최 - 뎀퐁인민위원회 조국전선과 뮤직포원
- 2018년 K-POP 크리스마스 축제
  - ▶ 공동주최 - 호치민시한국어학과 연합과 뮤직포원

12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노엘 페스티벌

- **사업내용**
  - 3개의 k-pop크리스마스 앨범 제작과 유통
  - 음악 공연 콘서트(2010년-2013년) 진행
    - : 콘서트외 버스킹, 밴드경연대회 등
  - 자선활동을 위한 노엘 축제행사(2014년-2017년) 진행
    - : 공연행사, 기부물건 판매행사, K-POP 커버댄스대회, K-POP경연대회 등
- **사업결과**
  - 한, 베 민간외교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기업과 지역 인민위원회, 베트남 대학 등의 참여로 성장함

13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노엘 페스티벌

### 2014 NOEL CHRISTMAS CONCERT

일시	2014년 12월 7일(주일) 오후 7시 - 9시
장소	LAN ANH 공연장 (QUAN 10)
인원	3,000명 / 입장권 - 200,000동
주관	뮤직 브릿지
출연	허스팝(한국 비보이팀), 페이먼트(한국 밴드팀), N-SONIC(k-POP 아이돌그룹), KHOI MY(베트남 가수), Ngo Kien Huy(베트남 가수), HARI WON(베트남 가수), J.MI(전자바이올린)

NHỮNG NGƯỜI LÀM CẦU NỐI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노엘 페스티벌

목 적	불우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엘 (의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크리스마스
기 간	12월 7일(주일) - 12월 14일(주일)
주 최	뮤직 브릿지
공 식 협 찬 사	TOV(베트남 엔터테인먼트),  TOY 예원 TV(베트남 뮤직 방송국)
후 원	라임 오렌지

NHỮNG NGƯỜI LÀM CẦU NỐI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노엘 페스티벌**

**G-WAVE 비보이 대회**

- 일시** 2014년 12월 14일(주일) 오전 9시 - 오후9시
- 장소** Nha Van Hoa Thanh Nien(Quan1)
- 주관** 히스팝 **HISPOP**
- 참가비** BBOY 300,000동, Freestyle 200,000동
- 모집** BBOY Battle(3-4인/선착순70팀)  
Freestyle Battle(2인/선착순50팀)

hispopkiddsvietnam  
NHỮNG NGƯỜI LÀM CẦU NỐI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노엘 페스티벌**

**심장병 어린이 돕기**

- 일시** 2014년 12월 중
- 대상** 베트남 선의복지 재단 추천 심장병 어린이
- 인원** 3명
- 주관** 라임 오렌지 **LIME ORANGE**
- 금액** 10,000\$ (Noel Christmas Concert 입장료)

hispopkiddsvietnam  
NHỮNG NGƯỜI LÀM CẦU NỐI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베트남**

- **신한류 페스티벌 2016**
  - 호치민시 한국어학과 연합 K-POP 경연대회와 버스킹
- **세종 특성화 사업 2020**
  -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한글 플러스 예술교육
- **월즈프랜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2019-2021)**
  - 베트남 호치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 **뮤직브릿지 무상음악교육**
  - bw 사회공헌 프로젝트 “베트남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18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아리랑 공연

### ❖ 국제열린문화교류회(OSIE) 아리랑 공연

- 1998년부터 캄보디아, 미국, 캐나다, 미얀마, 인도, 필리핀, 멕시코, 일본 등에서 집회 개최 하여 국내외 문화소외지역에 한국전통문화와 함께 사랑과 위로
- OSIE가 예루살렘에서 진행한 2016년, 2018년 공연
  - ✓ 한국 전통악기공연, 전통춤, 전통혼례, K-POP 댄스, 현대 무용극 조화시킨 공연
  - ✓ 한복 체험과 사진 촬영, 전통 차,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 등을 제공하여 이스라엘 청소년들에게 한국 문화 소개
- 총 12회에 걸친 공연에 연인원 1만 2천여명의 유대인 참여
- 영광교회 교인 중심으로 70여 명의 단원, 50여 명의 자원봉사단 참여

19

## 한류와 해외 선교 사례 : KWMA

###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문화실행위원회 2021 프로젝트 :

- 선교지(태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의 거점 미디어 선교센터에 스튜디오 공간을 구축하고, 청년 인턴선교사를 양성 파송 계획
- 2020년부터 시행한 답쟁이 가상 합창단 공모 사업 2021년 추진

미디어+공간



청년 인턴쉽



## 국내 외국유학생 현황과 전망

-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한류열풍, 교육부 외국인유학생유치 정책으로 유학생 몰려옴
  - ✓ 2019년 유학생 160,165명 전년대비 12.6%(1만 7960명)
  - ✓ 5년 새 두배 증가, 교육부 2023년까지 20만명 목표
- 4천명 이상 유학생 유치한 대학교(경희대, 고려대, 건국대 등)
- 국내 신입생 자원 고갈되면서 재정 확충위해, 향후 유학생 유치 확대 가능성 높음



22



23

### 한류와 국내 선교 사례

**● CHISTA[Chinese Student Abroad]**

- ✓ 2011년 제1회 대구경북 차이스타(Chista: GLC) 개최 이후, 제11차 대회까지 진행
- ✓ 대구경북교수선교회, 부산울산경남교수선교회 공동 주최, 중국유학생사역자네트워크 주관, 지역 교회 후원
- ✓ 약 3~400명 학생과 사역자 참여
- ✓ 2020년, 2021년 온라인으로 전국 규모로 약 2,000여명 참석하였음.
- ✓ 초기에는 문화 행사(기독교 음악 공연, 연극 등)를 다수 포함하였으나, 이후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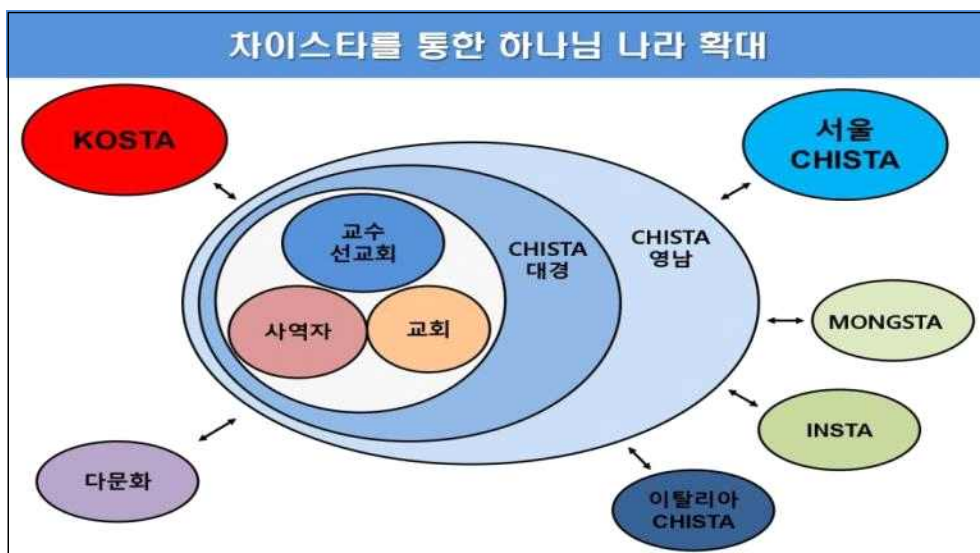
24



### 차이스타 : 새로운 선교 모델

- 중국 선교의 새로운 모델  
: 교수선교회, 선교단체, 지역교회 모두가 연합한 세계에서 2-3년 앞선 모델로 평가
-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유학생 선교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  
: 아이즈광 찬양팀, 리더수련회, 부활절 연합 예배
- 유학생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
- 중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에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세계 차이스타를 위한 계기
- '중국 선교' 에서 '선교 중국' 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 미침
- 귀국유학생(Returnee) 사역으로 확장되어 중국 사역자들의 관심 촉발
- 차이스타 영향으로, 2017년 Mission China 2030대회부터 귀국유학생들의 중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역자들의 모임인 Returnee pre session 운영

26





## 한류와 국내 선교 사례

### ● Campus International Church Association

- ✓ 2013년 대학내 유학생 선교위해 국제교회 설립
- ✓ 현재 16개 대학의 국제교회 연합회로 구성. 건국대(KUIC), SNU교회 국제예배부, 성균관대 (SKKU-ISC), KAIST (KIC), 포항공대 (PIC), 한동대 교회 국제예배부, 전북대, 충남대, 경희대, 숙명여대, 숭브리지대, 고려대, 순천대, 부산대, 제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홍익대



28

## 한류와 국내 선교 사례

### ● CSM(Global Stud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2013년 1회 이후 매년 개최
- ✓ 2018년 6회 360명 참가, 인천송도 연대 국제캠퍼스
- ✓ 2019년 7회 417명 참가(34개국, 34 대학교 참가), 인천 송도
- ✓ 2021년 8회 480명 참가(35개국, 37 대학교 참가), 비대면
- ✓ 그 외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경성대에서 별도 유학생 선교 모임



29

##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

### ❖ 해외 아웃바운드(Outbound) 선교 함의

- ✓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태권도 선교는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 일본에서 겨울연가로 비롯된 한류에 힘입어 추진된 문화선교 프로그램인 러브소나타는 2천 개가 넘는 교회와 66,000명이 참가했고, 한국 온누리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 15,000여 명이 참가했음. 그 결과, 3천 명이 넘는 결신자가 나왔음. 한류를 활용한 문화 선교의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 OSIE의 아리랑 공연 경우, 이스라엘에 역점을 두고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으나, 문화행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복음 전파 측면에서 영향력은 문화 행사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
- ✓ 베트남에서 진행된 노엘 페스티벌을 비롯한 문화선교는 한류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전개해 나왔음. 노엘 페스티벌의 경우 성탄절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크지만, 일회성 행사여서 향후 결신이나 제자 양육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 KWMA 문화예술실행위원회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센터와 청년인턴 파송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 여부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됨. 종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미디어센터를 실감미디어 기술로 구축하여 **한류+IT+선교** 강국으로 상징성을 지닌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

### ❖ 국내 유학생 중심 인바운드(Inbound) 선교 함의

- ✓ 한류로 인해 국내 외국 유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선교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 유학생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이스타대회는 한류를 활용한 집회라기 보다, 한류 영향으로 유입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됨. 교수선교회, 지역교회, 선교단체 협력 모델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수 있음
- ✓ 차이스타 이후 귀국 유학생들의 중국 교회 정착률이 매우 낮기에 귀국 후 중국 교회에 조기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 기타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로 진행해온 CICA 대회 역시 차이스타와 선교적 의미는 동일함. Chista처럼, Mongsta, Insta, Rusta 이름으로 세계 각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연합 선교 모델의 경우, 대회 이후 후속 양육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이를 위해 대학교, 지역교회, 선교단체와 연합이 요구됨. CICA의 기독교수들을 중심으로 유학생 대상 대학교회 설립을 확대해가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해 보임.

##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

### ❖ 새 술은 새 부대에

- ✓ 신한류의 주된 팬들인 젊은 세대에 맞게 새로운 선교 전략이 요구됨.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술을 통합하는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Omni 선교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 온라인 공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2의 가나안 땅. MZ 세대는 여호수와 이후의 세대로 다른 세대들임. 국내외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 전파는 문화가 다르기에 전도가 아니라 선교적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 것임
- ✓ 새 부대는 기성 세대가, 새 술은 다음 세대가 신한류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야 함. 기성 세대는 선교 네트워크와 플랫폼 구축, 다음 세대는 선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 성전 신학 한계점을 인식하고 현재까지 정주민 대상의 성전 건물 중심 교회도, 디지털 유목민들을 위해 회막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 교회는 한류 지도를 참고하여 메타버스를 통해 선교지에 회막 교회(cyber church)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 교회당 중심의 예배, 신앙 생활, 교회 학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메타 버스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하여, 변모해야 할 것임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	발표자	이상식
		논찬자 (소속)	김만규 (공주대 교수) 박종암 (KWMA 문화예술선교 실행위원회 총무, 선교사)

존경하는 이상식 교수님의 “한류의 문화 선교적 함의”에 대해 논찬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이고 VWI(Visual Worship Institute)의 회원으로서 스틸예술사진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전하는 프로사진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대학교수선교협의회(KUPM)의 문화예술선교 분과위원장 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문화예술선교실행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 논찬을 위하여 저에게는 부족한 문화예술선교의 현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KWMA 문화예술선교실행위원회 총무 선교사’이신 베트남의 박종암 선교사님과 함께 본 논찬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식 교수님은 언론영상학 분야의 학자로서 “기독교의 문화사역을 선교적 관점으로 관찰하고 연구”하셨다는 점에 무엇보다 존경을 표현하며 논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식 교수님께서 ‘한류’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화전파 추세의 흐름 속에서 해외와 국내에서의 문화사역의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 언론영상학자로서 199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한류가 세계화되는 현상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한, ‘한류’는 드라마에서 시작해서, 아이돌 그룹의 케이 팝을 거쳐서, 뷰티, 음식, 관광, 의료 등 한국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의 한류문화선교 시도’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논하심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상식 교수님께서, 1997년도 한류의 시작부터 현재의 한류3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실생활에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는 ‘한류’는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선교적 과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상식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국,내외의 문화사역의 사례 분석은 중요한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로 시작된 한류, 선교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된 문화사역들, 그리고 국내 대학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 대회들을 살펴보면, 단회적인 행사 위주의 일회성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전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사례분석과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선교 분야의 전략연구’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상식 교수님께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 결론 부분의 한류의 문화선교적 해외 Out bound와 In bound 차원의 선교 함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의미처럼 신한류의 주세대인 청년세대에 적합하면서도 문화예술에 높은 전문성을 띤 ‘선교전략모델’이 필요하다는 역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파트너십으로 온라인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선교환경을 조성하고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에 한국의 범교단, 선교단체들의 최고연합기구의 하나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문화예술선교실행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선교플랫폼’의 형성을 통한 국내,외의 문화예술선교사역에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회장 발표자 이상식 교수님)의 문화예술선교위원회가 동역하여 다음세대를 선교로 연결하는 좋은 브릿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연차학술대회에 미래적인 논문 발표와 학회 측의 준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